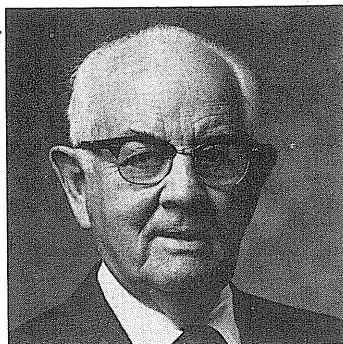




성도의 빛 12 1979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구세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 7월이면 내가 온 세상에 예
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하
도록 부름을 받은 지 36주년을 맞이하
게 됩니다. 이 막중하고 특별한 부름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
는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으로서 이 부
름을 변함없이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특별한 임무를 끊임없이 맡고 있으
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중심이 되시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멸망케 할 이단

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벧후
2:1) 그리고는 가장 극심해질 특정한
이단을 강조하려는 듯이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주님을 부인하게 될 이
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은 분명히 궁극적인 기독교 이단을 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속죄를 행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위대한 속
죄의 행위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
재를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선
행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참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헨리 섹스맨은 역사의 구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라고는 하면서 자신에 대해 말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면서도 겹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 달성한 그의 속죄가 불사 불멸을 가능케 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친구인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견한 이단이 극심해지는 이 시대에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택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예수가 단순히 도덕 선생, 즉 가장 위대한 도덕 선생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이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침이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원과 우리의 지상 생활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가르치신 모든 것은 진실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고 말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에 절망과 소외감이 널리 퍼지는 원인의 하나는 다만 이생에 관한 희망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즉 이생에서 행복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와 표준과 계명뿐만 아니라 속죄를 통하여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의 개인적인 책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세의 성역에서도 뛰어난 지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사업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자들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신다면 히브리 성도들에게 한 바울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히 11:26 참조)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왕의 궁정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끝내 그것을 거절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야콥은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자를 포함해서 모든 거룩한 예언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대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의 강림 수백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으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 역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보라 이 거룩한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 하였으며”(야콥서 4:4, 5)

우리가 겹세마네 언덕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 주는 텅빈 무덤의 중요성과 깊

은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 서반구의 다른 양들에게 베푸신 성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 10:16; 니삼 15:17, 21-24 참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참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님의 부활한 아들 이외의 다른 존재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메시지는 인류에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대하므로 그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단순히 지켜 나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결한 것입니다. 구세주인 나사렛 예수의 제자요 추종자인 우리 모두가 진실로 믿는 자임을 언행으로 증거해 나가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딤후 2:7, 8)

청년 여러분은 또한 선한 일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현재에도 주님의 추종자들은 운명적으로 오해와 거짓 증언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내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성역을 베풀게 된 것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누구보다도 존경하며 사랑한 총판리 역원은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판장이었습니

다. 그분에 대한 나의 느낌은 지금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분의 많은 중요한 말씀 중에 구세주의 참된 추종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리차즈 부대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는 전부터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해볼 만하고 극적이며 중대한 일이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확신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면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예지와 지식과 성품과 지혜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는 몇번씩 되풀이해서 구세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단순한 말을 듣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차즈 부대판장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일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해볼 만하고 극적이며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독교인의 행동만이 인간의 행복과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반세기 전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가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오래된 회원은 충실하지만 성장하는 세대는 교회의 표준을 이탈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스미스 대판장은 1925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견해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가운데에도 충실하지 않으며 선조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라면 대체로 선조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유혹의 시기에 처하여 낙

답하고(눅 21 : 26 참조)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 스미스 대판장과 같이 똑같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몇 가지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бри감 영 대판장이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의 전파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세상이 크게 변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흔히 재미없고 별로 주의를 끌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잡다한 상황에 처하여 여러분의 생활이 지극히 보잘 것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필립스 브룩스씨(1835-1893, 미국 성공회 주교)는 "위대성이란 인간의 생애에서 특정한 자처럼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성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생애는 영원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작을 때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위대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으면 봉사와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여러분의 무분별한 꿈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애써 완성한 일보다 수행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기독교인의 생활에 맞는 진리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이같은 준비 기간에 반드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그때그때 적용하십시오. 필립스 브룩스씨는 "세상이 기념상으로 가득 차기에 앞서 매리석으로 가득 찬 산이 있기 마련입니다."(문학과 생애)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의 형상을 조각하시게 해줄 기본적인 선한 자질을 여러분의 내면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서 봉사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겨에서 밀을 가려내기 위해 체질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인간 가족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려고 자신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주의 작은 인간 가족인 자신의 가족을 효과적으로 섬길 줄 알도록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가족 단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도 신앙으로 받아들이야만 할 것이 있어 현재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현재 어렵게 생각되는 일이 장차 하나의 즐거운 일이 될 날이 있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방법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의미

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뺨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 : 8-9)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인 학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바울이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고후 3 : 5)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체로 자신의 선택이 바울의 말처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세가 선택해야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바로 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히 11 : 24-25)

바울이 구세주의 추종자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롬 16 : 19) 권고한 것을 우리는 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굽히지 않을 때 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쉽게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세상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교성112:30)에 살고 있으므로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시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날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는 분들은 과거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 : 6)고 하는 계시가 주어졌던 초기의 주님의 종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그들도 1978년 봄에 느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엡 3 : 5)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합당한 남녀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 들이는자가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도록 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나는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신전의 다락방을 혼자 여러 날 동안 수없이 드나들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들의 이유를 내세우거나 계시가 주어지는 성스러운 과정을 부인하는 데 민첩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나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간증은 내가 그분에 대해 드리는 모든 간증 중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행스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이 성탄절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여름 해군 훈련원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방안에서 내 맞은편에 있던 사람은 군복에 많은 수장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복무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당시 기초 훈련을 받는 특별 훈련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에서 매우 정중하게 나를 맞이한 해밀튼 중령은 나를 “행스씨”라고 부르며 예의바르게 자리를 권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훈련원 센터에서 선임 군목으로 있던 중령은 내가 군목이 되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들였던 것이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대학 교육을 도중에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학위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해 해군 기준으로 볼 때 군목이 될 자격이 없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는 내가 다른 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조건은 상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행스씨, 내가 당신을 군목으로 추천하기 전에 제 부탁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하신 일과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군목으로서 주님을 대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당

신을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것이 내가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노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어려서 교회에 참석한 것이며, 이분 반 말씀, 집사, 교사, 제사, 장로, 칠십인으로 일한 것, 소년단, 신학원 중등부와 대학부, 주일학교 교사, 지도자의 일, 선교 사업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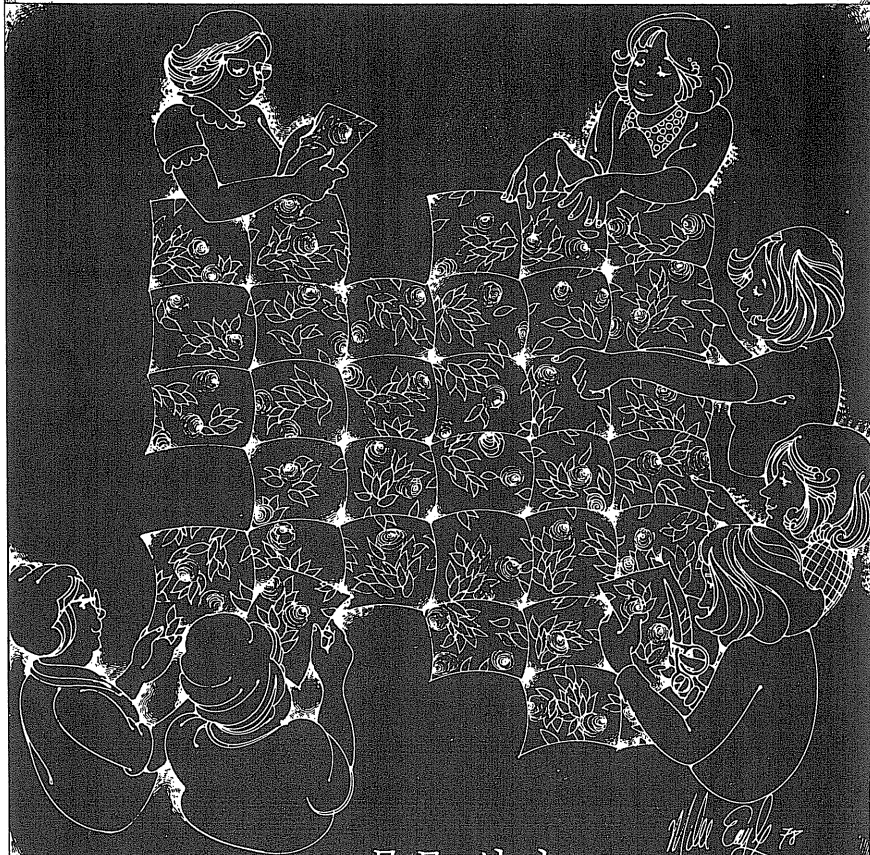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자, 그렇게도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관심을 보여 주던 사람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흥미를 잃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그러하듯이, 내가 그의 기분에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쩔줄을 모르게 되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교회 경험을 쌓아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을 길러 나갔음을 그에게 전달시키려 애를 썼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내 말을 막으며 통명스럽게 “행스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하고 말했다.

“예, 중령님!”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생활은 구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속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을 토대로 하여 세워졌으며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이름을 따라 불리워집니다.”

그는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7분 동안이나 말씀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군요.”

나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물몬 일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의 선물

성 탄절이 한달 밖에 안남았다. 나의 장인과 장모님을 위한 선물이 거실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수주일 동안 방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다.

수잔의 부친이 심한 척추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특별히 주문한 대형 침대가 필요했다. 침대의 딱딱한 부분은 그녀의 아버지가 사용했고

폭신한 부분은 그녀의 어머니 엘라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침실은 거의 침대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침대로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 엘라인은 자주 불평했다. “침대가 너무 커서 이불이 맞아야지. 항상 침대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아니면 한쪽으로 미끄러지니 말이야. 침대에 맞는 큰 이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수잔은 10월에 그 대형 침대에

맞는 대형 이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여러 번 시내로 나와 그 칩대에 맞는 이불을 만들 천을 골랐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분홍색의 화사한 꽃무늬가 들어 있는 천을 골랐다. 와드의 한 자매가 대형 이불 만드는 틀을 기꺼이 빌려 주었다. 우리가 드디어 이불의 틀을 형성했을 때, 압정으로 그것을 고정시켰다. 그 이불은 거실을 꽉 메웠다. 우리는 피아노를 복도로 밀어 놓고 가구를 적당한 곳으로 치웠다. 가정 복음 교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주방에서 맞이했다.

수잔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불을 꾸미고 있었다. 이 일은 그녀가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녀가 칩실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위해 서로 두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상처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이불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불을 빨리 해치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언젠가 그 이불의 틀은 널려 있었고 수잔의 부모를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때로 난처한 일이 일어나게 했다. 어느 날 엘라인은 우리집 문 앞에 왔다. 수잔은 집에 없었다. 내가 나가 보았다 내가 장모님을 집에 맞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고 장모님은 아주 이상한 사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문을 잠그어 둔 채 물건만 주고 받았다. 분명히 장모님은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불을 완성했던 날 저녁 수잔은 크게 기뻐했고 그녀는 완성된 이불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몇 방울의 감격의 눈물은 성탄절까지는 홍수를 이룰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내가 학교로 떠날 때, 수잔은 거의 완성된 이불을 완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플라스틱 백에 넣어 일부 개조된 방에 그것을 숨겨 두기로 작정했다. 목수가 새로운 벽장을 만들기 위해 그날 저녁에 다시 왔다. 그 목수는 큰 플라스틱 백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차고에 치워 두었다.

그러나 진짜 범인은 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날 저녁은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었다. 나는 쓰레기 통을 비우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서 플라스틱 백 속에 넣었다.

다음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잔은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벽장에서 나와 나를 쳐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런 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아마 이불이 쓰레기와 함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오쯤 그 이불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현지 답사 여행을 나가 있었으므로 집에 올 수 없었다. 그녀는 장모님을 불러 이불에 관한 이야기랑 그녀가 수주 일 동안 걸쳐 일했다는 이야기며 쓰레기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내와 장모님은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쓰레기 더미로 가서 그것을 찾았다.

그들은 쓰레기가 쌓인 더미 사이를 다니며 살살이 찾아보았다. 어떤 것은 이

미 더러운 것으로 덮여 있었다. 거기에는 플라스틱 백이 있었으나 화사한 꽃무늬가 놓인 분홍색 이불은 없었다.

“언제 맥의 쓰레기를 버렸습니까?” 라고 청소 책임자가 물었다.

“오늘 아침 일찌기 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너무 밑에 깔려 있을 테니 더 이상 찾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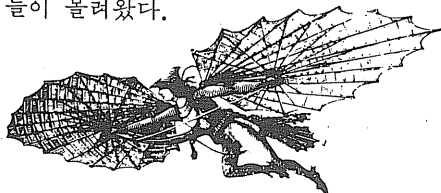
나는 아내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정성들여 만든 성탄절 선물이 쓰레기 더미 속 깊이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고 서로 활짝 웃었던 것이 2,3일 전이었으나 이제는 웃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하나 들추어 볼 시간은 없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주위에 퍼졌다. 한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수잔의 비극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곧 상호부조회 회장이 문을 노크했다.

“우리는 모두 자매님을 돕기로 작정했어요. 자매님은 재료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많은 자매들을 불러 왔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자매님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잔은 동일한 분홍색 천은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붉은 딸기 무늬가 놓여 있는 흰색 천을 구했다. 우리는 프레임을 갖고 왔다. 수많은 자매들이 몰려왔다.



내가 아침에 학교로 향해 떠났을 때 그들은 이미 몰려들었고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네번째 층이 완성되었다. 프레임이 서로 가까워졌다.

수잔은 너무 빠르게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좀 느리게 일하는 자매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매우 치밀하게 일했다. 몇몇 자매는 하루 종일 일했다. 그들은 단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다시 와서 일했다. 그들은 일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웃기도 했다. 우리는 이 와드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아직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친해지기 시작했다.

머칠 후에 일이 끝났다. 군대들이 진군하여 들어왔다가 정복하고 가버린 느낌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수잔은 두 번째의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었다. 때때로 군인들의 손가락에 피가 흐르기도 했으나...

이제 우리는 수잔의 부모를 놀라게 해 줄 선물을 가졌다. 그들은 비극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동안 다른 이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그 이불을 그들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작은 상자에 접어 넣었다.

엘라인이 성탄절 아침에 그 상자를 열었을 때 흰색 천에 딸기 무늬가 수놓인 이불이 튀어나왔을 때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렸고 수잔도 역시 울었다. 곧 우리 모두는 울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지난 지 6년이 흘렀다. 우리는 그 이불을 우리가 드린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신대륙과 구대륙 문명의 유사점

직물 위에 무늬를 찍어 내는 기술과 작은 상과 피라미트와 바퀴가 달린 장난감과 틀니는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물건 가운데 속한다. 이것은 “놀라운 유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두 대륙의 문화에 어떤 유사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보스턴 벤트리 대학의 노만 토텐 박사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행한 강연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그의 발표는 특별히 말일성도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이 발표는 콜럼버스 이전에 있었던 구대륙에서부터 신대륙까지의 반복된 항해에 대한 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의 배와 아주 판이한 동일한 형태의 배의 그림이 크레테와 텍사스에서 발견되었다. 나사의 원리가 대양의 양편에 나타나 있다. 유사한 두건과 코걸이는 주화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을 보여 주는 조각들이 파나마의 산 브라스 제도과 네팔에서 발견되고 있다. 뉴멕시코, 앨버커키의 남부 지방에서 발견된 “로스 룬다스” 비문은 히브리어와 페니키아 말로 읽을 수 있다.

토텐 박사는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언어에 나타난 지중해어의 발자취를 나타내주는 바리 펠 박사가 이룩한 연구를 발표했다. 예를 들면 리비아의 말과 주니말 사이에는 50퍼센트의 유사성이 있었다. 포에니아 문자와 이베리아 문자는 버몬트의 돌비에 새겨져 있다. 고

대 아일랜드의 문자인 오검 문자는 버몬트에서 발견되었다. 토텐 박사는 고대 중국 및 이집트 문자를 통해서 바둑판 눈금 모양의 특징을 추적했다. 이것은 포르투갈과 아아칸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나 “농업 분야”라는 뜻을 나타낸다.

화폐의 증거 역시 콜럼버스 이전의 항해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아테네의 머리가 새겨진 회람의 동전과 괴물실라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이 아아칸소 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주후 65년경 유대의 최초의 반란이 화폐(화폐)과 두 번째의 반란의 화폐(주후 135년경)가 켄터키의 네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고대 세계에서의 항해의 증거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는 콜럼버스와 함께 시작된다고 배웠는가? 토텐 박사는 항해와 문화에 관한 자료가 알렉산드리아와 카르타고의 위대한 도서관에서 줄리어스 케잘의 군대에 의해 불타버렸을 때 그 자료 역시 소실되었다고 지적했다.

포에니아인들과 다른 항해가들은 무역품과 조류를 남몰래 이용하는 경제적 기득권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콜럼버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것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 외에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

나는 회원 선교사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진실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리고 여러분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사업에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사업은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1. 우리는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는가? 그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던 없든 그들과 친구가 되는가?
2. 나의 이웃은 내가 가진 집과 의복과 아파트와 또는 차로써 나를 판단하는가? 나는 순결과 질서와 아름다움에 관한 높은 표준을 지니고 있는가?
3. 나의 이웃과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요청할 만큼 친한가?
4. 가족과 교회 활동에 비물론 이웃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5. 험담이나 욕설이나 야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가?
6. 나의 이웃에게 특별한 훌륭한 일

을 한 적이 있는가?

7. 담배나 술을 취하는 자들보다 나 자신이 더욱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가?

8. 커피를 대접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상대방의 호의에 거슬리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9. 나는 비회원 친구와 친척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10. 나는 비물론 친구에게 물문경이나 성도의 벗 1년 구독권을 보내 주고 있는가?

11.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자신의 선교사를 위한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가?

12. 나는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가?

13. 나는 민족과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는가?

14. 나는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한가?

15. 나는 선교사 기금을 내는가?

16. 나는 민족과 문화에 대한 나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17. 나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가?

18.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일성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가?

19.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간증을 나눌 적절한 시간을 찾고 있는가?

20.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소개할 비물몬 친구나 가족을 선정하고 구도자 소개 카드를 보내고 있는가?

21. 나는 선교사에게 편지한 적이 있는가?

22. 나는 교회 역원을 비난하지 않으며 모임이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복장 표준 등에 관해서 불평하지 않는가?

23. 나는 가정 복음 교사로서, 방문 교사로서 또한 다른 부름에서 기꺼이 훌륭하게 봉사함으로써 선교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24. 나는 나의 자녀에게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가사, 요리, 기타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가?

25. 나의 가족은 선교사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경전을 연구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갖는가?

여러분이 질문을 대강 훑어보면 압도되는 느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대답을 확인해 보면 “아니오보다 ‘예’가 더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의 질문을 교회 선교사과에서 구분한 다섯 가지 의무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한다—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 여러분이 특별히 정직하고 친절하고 결백한 어떤 일을 행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가장 훌륭한 도구의 하나는 모범입니다. 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장인 어네스트 에버하드 이세는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거기에는 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스펀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적극적인 기독교인의 덕성을 모범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보다 교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행해야 할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 (“최막대기를 굳게 잡으십시오”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9페이지)

2. “기도한다—나는 나라의 문호가 개방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을 기도한다.”

기도는 이미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킴블 대관장의 아래의 권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온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왕과 통치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1975년 6월 27일, 6월 대회말씀) 3년 후 킴블 대관장은 이 권고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모든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일을 꼭 간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67페이지)

그것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준비한다—나와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다.”

자신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나, 열심히 일할 때나 기도할 때나 공부할 때나 돈을 저축할 때나 건강을 유지할 때나 남을 사랑하고 도울 때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칠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명을 굳게 다짐

한다는 뜻입니다.

4. “보낸다—나는 돈과 물몬경과 교회 잡지 구독권 등을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보낸다.”

선교 사업을 위해 선교사 기금을 내며, 물몬경과 교회의 잡지를 친구에게 보내는 것은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봉사한다—나는 비회원 친구나 가족과 우정 증진을 함으로써 회원 선

교사로서 봉사한다.”

위에 열거한 4가지 의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섯번째는 다소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훌륭한 경험을 가진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이웃집의 좋은 친구

비회원인 윌슨 가족이 미국 아이다 호주 보이시에 있는 하우스드 일가의 옆집으로 이사왔을 때, 콜렛트와 쉐크 하우스드는 즉시 그들을 만나러 갔다. 그때 콜렛트는 이웃집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차였다.

곧 훌륭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팸 윌슨도 친구를 원했지요...그녀를 알게 되서 매우 기뻐어요!”

윌슨 가족이 팸의 부모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 종교 문제가 대두됐다. 콜렛트는 그녀가 거기에 있는 동안 가족 역사에 필요한 지식을 모으도록 권고했고 팸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 후에 팸은 콜렛트와 함께 몇번 교회에 갔으나 그만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다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팸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되자 그녀는 죽은 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콜렛트는 그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눈치챌 수 있

을 만큼 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죽음과 영의 영원한 본질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팸의 간증이 자라기 시작했다.

팸은 주일학교에 몇번 참석하고 나서 “나는 뭘 좀 얻었어”라고 말했다.

“화평을 얻었니?”라고 콜렛트가 물었다.

“그래, 이제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대답했다.

팸은 1979년 2월에 침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심으로 친구를 원하고 또한 친구가 되어 주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미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더 알기를 거부한다면 할지라도 여전히 우정으로 가까이 지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는다면, 그 우정에다가 복음의 형제애가 크게 더해 질 것이다.*

김 바아튼은 월요일 저녁에 가족을 모아서 가정의 밤을 가졌다. 노래를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보통 때와 마

찬가지로 아빠가 공과를 가르쳤다. 짐은 장로정원회 교사로서 자신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자녀에 대한 신뢰



공과를 시작하자 15살된 아들인 짐 이 세가 턱을 피고는 마루 바닥을 보고 있었다. 역시 십대인 짐은 아버지가 “성구 하나를 더” 제시하자 상당히 짜증을 냈다. 그 밑의 아이들은 여러 번 꾸중을 들었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방으로 쫓아 보내겠다.”

공과가 끝나자, 아이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리고 나서 짐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겠군. 아이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야”라고 짐이 말했다.

“여보, 당신이 애들에게 말한다는 사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아내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애들은 설교를 듣는 것을 싫어하며 짐과 진의 연령 때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오?”

“다음 주에는 당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가정의 밤을 갖지 말자는 뜻이요?”

“물론 그런 말은 아니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고 아이들에게 시켜보세요. 그들을 참여시킵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식의 가정의 밤이 될지 알겠오? 아마 큰 잔치가 될거요”

“아마 처음 1,2주는 그렇겠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데 싫증을 낼거예요. 그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짐은

자녀들에게 임무를 주도록 결정했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자기 차례를 가졌다. 그날 밤은 바야튼 일가의 가정의 밤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지니가 모임을 계획했다. 아이들은 모두 무엇인가 맡아서 했으며 짐 이세는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게임을 준비했다.

아버지도 그날 밤 즐거웠다. 또한 나중에 짐 이세가 “엄마,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를 믿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는 것을 나중에 아내로부터 듣고, 전 가족이 참여하는 데 더 큰 유익이 있음을 발견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다 각자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동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 준다.

모든 사람이 행함으로써 배운다. 케익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듣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케익 반죽을 하는 것을 대신 할 수 없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임무가 주어질 때 자신감이 증대된다. 그런 책임(노래를 지휘하기, 기도, 이야기하기, 가정의 밤을 인도하기, 성구를 읽기, 특별한 보고를 하기, 가벼운 음식을 준비하기 등)은 지명받는 사람의 능력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돌아가면서 일을 맡도록 간단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자기가 그 활동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돕고 있다고 느낄 때, 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 각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축복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가정의 밤이 될 수 없다. *



사랑으로 꾸짖음

스펜서 제이 콘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자녀를 훈육시키거나 남편이나 아내와 어떤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다가 갑자기 억누르지 못하고 발산시키는 수가 있다. 그리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말을 내뱉으며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교성 121:43)라는 말씀을 구실로 하여 결정을 낸 것을 변명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감정 상태에서 그러한 느낌이 분노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느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판단하기 힘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 중에서 하나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개의 경우에 성신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 고향을 지른다.
2. 꾸짖으면서 욕설을 한다.
3.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이나 갈등을 느낀다.
4. 상대방(우리 자녀도 포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기분나쁘게 한다.
5.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6.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표

시한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다.

1. 꾸짖는 정도가 그 이유에 타당하다.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간수를 꾸짖은 것은 거룩하신 두 분의 이름을 모욕한 간수의 더러운 말에 타당한 것이었다. 구세주가 거룩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을 쫓아 내신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참람함과 신성모독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신발에 진흙을 잔뜩 묻힌 네 살된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는 더 많은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한다.

2. 남을 꾸짖을 때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물론 꾸짖는 사람도 역시 고통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분노를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꾸짖기 전에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을 앞세운다면, 지나친 욕설이나 분노는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쁜 뜻을 품지 않고 즉시로 꾸짖는다. 성신의 감동을 받아 어떤 사람을 꾸짖게 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나쁜 느낌을 품지 않고 즉시 꾸짖게 된다. 성신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차이를 메꾸어 좀더 터놓고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4. 꾸짖은 다음에는 “더 큰 사랑”(교성 121:43)이 따른다. 이 사랑은 가장 해서는 안된다. 또한 꾸짖은 다음에 즉시 사랑을 보여야 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일 동안 냉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위로하는 것을 종종 반복해서 그 꾸짖음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5. 자신의 말과 느낌을 주의깊게 살핀다. 우리는 모든 면을 알아서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성 121:42) 우리는 해치려고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을 그 상태보다 더 나쁘게 만들거나 문제를 더 과장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6. 꾸짖기 전에 성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안을 어질러 놓았다고 하여 심하게 자녀를 꾸짖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성신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다.

7. 가능하면 언제든지 꾸짖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다.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8. 꾸짖은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느낀다. 우리가 정말로 성신의 감동을 받는다면 성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관해 즉시 알려 주실 것이다. 일단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 *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해리어트 에스 헬버트

우리의 결혼은 종교를 문제삼지 않는 한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으며,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몹시 불행했으므로 열 여덟살에 가정과 교회를 떠났고 스무살에는 비회원인 노먼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나의 신앙에 따라 생활하지는 않았으나, 정말로 성신이 나의 결혼 생활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먼은 교회에 대하여는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나 훌륭한 남자였고, 내가 자녀들을 물몬으로 키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 자신은 다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나의 영적인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양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글러스가 세살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내 아이들이 나와 같이 되지 말도록 돌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나의 두 남자 아이가 훌륭한 종교적인 환경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즐겨쓰던 말 중의 하나는 “나의 나쁜 버릇은 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교

회의 부름에 내가 응하게 된다면 온전히 그 표준대로 살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부름에 응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이 거의 세살이 되었을 때, 나는 유년 주일학교에서 3살 연령의 그룹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몹시 마음이 내키지 않은채로 그 부름을 받아 들였습니다. 스티븐은 내가 없으면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끔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으며 다른 모든 계명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나는 복음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한 간증을 얻었으며, 매우 고통스러운 회개의 기간을 거친 후 나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1956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거기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느끼는 행복을 조금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몹시 완강했으며, 그에게 강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이 훌륭한 것을 그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옥신각신하던 끝에 1958년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아 나는 완전히 겸손해져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치고 이 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이 나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그가 자유의지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노먼은 내가 자녀를 교회에서 키우도록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부름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와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으나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나는 노먼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능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알아야

겠다고 생각해서 14년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은 나에게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복음에 관하여 그에게 이야기했으며, 언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관해 순간적인 확신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십사년에 되어진 일을 단 몇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후회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으나, 우리 아이들과 나는 결코 복음대로 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7년에 노먼은 종교적인 봉사 단체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나는 이것이 그를 개종시키는 데 또다른 장애가 될까 봐 우려했습니다. 나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 대하여 더 큰 편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교회에 갈 만큼 아량이 있나요?”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으나, 그날 늦게 정말로 그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에서 구도자반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1년 이내에 성찬식에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나는 기뻐했으며, 우리는 와드 회원들이 그를 맞아 준 태도와 그를 와드의 일원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해에 그의 내부에 큰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그를 개종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도구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이 더 큰 의미를 가졌으며, 이 교회가 가족을 중시하는

데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복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와드 회원들의 가정에서 많은 사교 활동에 우리를 초대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으며 노먼은 알코올성 음료 없이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두 아이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도왔으며,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성찬식에서 간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용기를 준 것은, 1971년 가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진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십이사도 평의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하신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과 더불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종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회원이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에게 참된 권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남편되시는 분도 굳이 이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과 욕망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실한 가장이요, 교회에서 활동적인 형제인 남편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완전히 희망을 잃은 자매가 침통한 말투로 ‘기적이나 일어나지 도리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적을 바랍니다까? 기적보다도 더 훌륭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남편께서 교회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



끼신다면 그가 집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목적임을 알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사도가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남편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과제입니까!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는 복음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울었으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성구가 생각났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0) 나는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

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말할 용기를 얻는다는 1972년 1월까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노먼에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느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이었는데를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는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 한 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결혼한지 37년이 지나서 노먼은 침례받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일월에 그런 이야기를 한 후 몇 개월을 돌이켜 보면, 이런 일이 생기도록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몇몇 친구가 노먼에게 하트만과 코니 벡터가 쓴 “타인이기를 그치고”(no more strangers)를 주었으며, 가장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게 하고 신권을 소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선교사로 나가는 환송 모임에서 노먼이 간단하게 말씀을 한 후에 노먼의 주일학교 교사는 그에게 침례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스티븐이 격려의 편지를 써서 자기 아버지에게 물몬경을 읽도록 부탁했습니다. 또한 다글러스도 간증을 전했습니다. 스티븐은 1972년에 비회원인 아버지를 두고 떠났으나 1974년에 돌아올 때는 자기 아버지가 감독단 제 2보좌로 단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선물을 서로 나누기를 기대하는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여러분, 부모들은 선물 꾸러미를 여는 자녀들의 환한 얼굴에 나타날 기쁨과 놀람속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성탄절을 행복한 때로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주고 받는 무한한 정신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선물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런 선물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주어져야 합니다.

성탄절의 계절은 선물 꾸러미를 풀고 소란을 피우며 가족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동 이전에 우리는 그의 탄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경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보다 겸손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은사를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세주 그 자신이 최고의 모범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훌륭한 생활을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관대한 선물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구세주에게 참으로 값진 선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와 슬픔에 잠겨있는 자를 위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니파이가 말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파이 1서 3:7)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근 이천년 동안이나 경이로운 밤으로 인식되어 온 성탄절에 관한 누가 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도록 권고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 2:11)

세계 각국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께서는 우리들 모두 한사람 한사람에게 깊은 사랑과 넓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 성탄절과 축복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표합니다.

Sincer W. Kimball
Mildred Tanner
Marion K. Romney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

1971년 5월 31일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 헌납식에서 하신 말씀

나는 여러분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둘째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하나로 두번째의 진리에 대한 간증의 전주곡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은 힘을 다하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요 세상의 구세주로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임한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며, 그의 피흘림으로 모든 인간이 불멸의 상태로 일어나,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역시 영생을 얻게 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하늘 아래 다른 이름으로는 인간이 앞으로 이를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이 말일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 이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이끌고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고 힘차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시대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의 지식을 계시한 분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 5:10)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모로나이가 약 150여년 전에 요셉 스미스에게 왔을 때, 어린 요셉에게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1970년 1월 23일에 93세로 교회의 10대 대관장이 되었다. 그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7월 2일에 95세의 나이로 운명하기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강건하였다. 그는 62년간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면서 교리를 주제로 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저서와 기사를 써 냈다. 그는 1876년 7월 19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와 줄리아 램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또한 예언자 요셉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의 손자였다. 그는 1910년 4월 7일에 그의 부친인 제6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하여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950년 9월 30일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서리로 지지 받았으며, 1951년 4월 9일에는 정원회의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그는 1965년 10월 29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보좌가 되어 1970년까지 일했다.

15년 후에는 주께서 직접 예언자에게 이 약속을 설명하셨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비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는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나도 이 마지막의 영화로운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 주께서

택하신 이 위대한 예언자에게서 나오는 충고와 권능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헤아릴 반기를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점차 요셉 스미스와 또한 이 생에서 평안을 찾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의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 회복된 복음을 향해 돌아서고 있음을 기쁘게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자

마자,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참으로 저가 시온을 위하여 우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저가 다시는 시온을 위해 슬퍼하지 않게 해주리라. 이는 저가 죄사함을 받아 기뻐하며 저의 일에 나의 복을 나타내 보임으로 기뻐하는 날이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리니, 저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준 저의 말을 믿게 되리라. 보혜사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상한 심령의 죄를 사하려고 죄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타내셨느니라” (교성 21 : 4-9)

이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오늘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한 참 진리를 알기 위해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 예언자의 이름이 온 땅끝까지 퍼져 만민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를 예언자로 받아들여 그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 그가 조직한 교회는 그를 통해서 받은 계시에 따르기 때문에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정한 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형이요, 나의 주부가 되시는 하이람 스미스 축복사와 함께, 그는 카테지 감옥에서 피흘려 그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나 역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주께서 그의 왕국을 지상에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날 강한 선견자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세상 끝까지 알리기를 바랍니다.

간증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리와 성약에 들어있는 이 영감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성 135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보조가 맞는 사람

데이비드 휴 벌리

손자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광경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어느 할머니가 “저런, 우리 손자만 빼놓고는 모두 발이 맞지 않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자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감싸 주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우스갯 소리이겠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즉, 내가 캐나다에 있는 영령 클럽비아의 빅토리아에서 대학에 다닐 때 밴드부에서 큰북을 연주하던 날까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큰북 연주자는 악기를 갖고 다니기 위해 군복을 입는다. 그가 행진해 나갈 때면, 그는 보통 걷는 사람과 같이 걸어, 왼발이 땅을 딛게 될 때 오른손은 앞으로 내밀어 북을 치게 된다. 이와 같은 왼발—오른손의 자세는 음악의 각 소절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므로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큰북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내가 치던 큰북도 매우 큰 것이어서 나는 북 너머로 똑바로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가는 다른 밴드부원들의 발은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음악에 맞추어 왼발—오른손의 자세를 취하여 발을 맞추어 나가곤 했다.

우리가 연례 검열을 받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할 때였다. 밴드부는 언제나 학교 길을 따라 행진하여 운동장에 모여

검열을 받게 되어 있었다. 밴드부가 행진할 때 앞장을 섰으며, 3열로 줄지어 선 소대가 그 뒤를 따랐다. 모두 박자에 따라 보조를 맞추었다.

제2차 세계 대전시에 영국군으로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퇴역한 군인인, 제지씨가 전체 행진의 총연습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밴드부원들은 북타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첫번째 브라운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학교에는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네 명이나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첫번째 브라운, 두번째 브라운, 세번째 브라운, 네번째 브라운 그리고 별칭으로 불렀다.) 첫번째 브라운은 키가 195센티미터 정도로 컸다. 그는 커다란 은빛 지휘봉을 갖고, 어떤 곡을 연주할 것인가를 결정했다. 그는 지휘봉을 여러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가르쳐, 밴드부를 지휘해 나갔다.

아침 햇빛을 받아 우리의 금속 악기들은 번쩍번쩍 빛을 발했다. 우리는 새로 다려 입은 유니폼으로 기운차고 멋지게 보였다.

제지씨는 목소리를 한껏 돋구어 명령했다. “3열로 우로 돌아 행진, 우로 돌아 잣!”

그러나 그때 일이 좀 잘못 되었다. 첫번째 브라운이 발을 잘못 내디뎠던 것이다. 전에는 그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 밴드부원 앞에서 발을 잘못 내디딘 셈이 되었다.

줄줄이 그 반응을 재빨리 전하게 되었다. 맨 앞에 있는 단원들이 첫번째 브라운과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자기들의 발걸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발걸음을 바꾸었던 것이다. 그다음 열도 급히 똑같이 하여 큰북 주자만 빼고는 모두가 그와 똑같

이 했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나는 큰북 너머로 볼 수 없었으므로, 다른 단원들과의 보조가 맞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저 음악을 듣고 박자에 따르고 있었다.

“벌리, 너 발이 안 맞는다!” 내 왼편에 선 향현복 주자가 속삭였다. 나는 음악에 맞추어 몇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발걸음이 제대로 맞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하고 나도 속삭여 주었다.

“벌리아, 너 발이 안 맞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프raise였다. “아니야, 난 안 틀렸어!” 하고 나는 고집했다. 나는 켄지씨가 부드러운 어조로 “벌리, 보조를 바꾸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좀 움찔했다.

“선생님”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음악에 맞추고 있습니다!”

켄지씨는 잠시 깜짝 놀라는 듯했다. 단원이 상관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들으며 나를 계속 지켜 보더니 “저런, 네가 맞는구나!”하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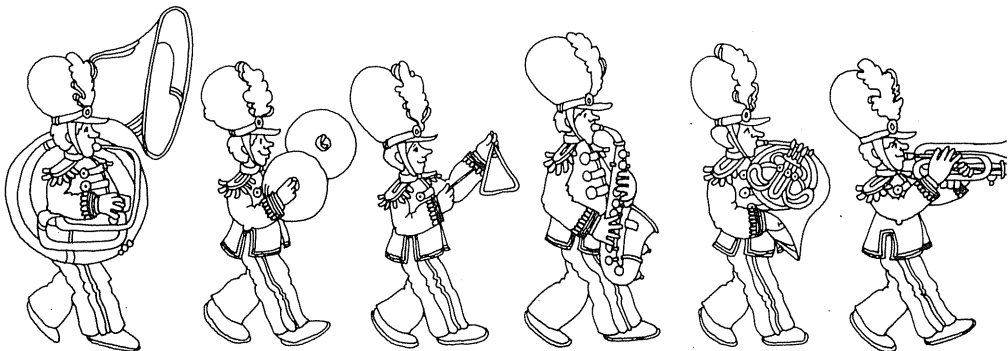
그런 다음 그는 행진하는 데에서는 좀처럼 들어보기 힘든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벌리만 빼고, 전원 보조 바꿔!”

모든 단원이 내 보조와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보조를 바꾸어야 했다.

나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보조가 맞지 않는 것에 관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테니까.

켄트와 콜린 오키는 내가 사진을 팔고 다닐 때 만나 보았던 다른 가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으며, 그 집에 들어서면 재털이는 찾을 수 없어도 항상 편안하고 화평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일하면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보조가 맞지 않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거실 한 쪽 테이블에 커다란 물몬경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려서 그 책을 몇 장 읽어 본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다시 그 책에 쏠리게 되었다. 오키 가족들은 내 질문에 흥금을 털어놓고 답해 주었으며, 다시 나를 초청해 주었다. 그들은 나를 선교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공부하



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했다. 23일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결국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고 느꼈으며, 주님과 그가 정해 주신 지도자들이 이끌어 주는 대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점점 더 알게 되자, 복음의 역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들의 시대의 사람들과는 보조가 맞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세는 속박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박해받고 투쟁하지 않고, 궁전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다니엘은 그가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대로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기를 거절했다. 절망적인 상태로 부패한 사회에 둘러싸여 있는 물몬도 몸을 굽혀 타락하기를 거절한다. 그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영향력있는 힘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주님께 귀기울였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요셉 스미스에게서 또 하나의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혼자서만 보조를 맞추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의 증인이 생기고, 여덟 사람이 더 들어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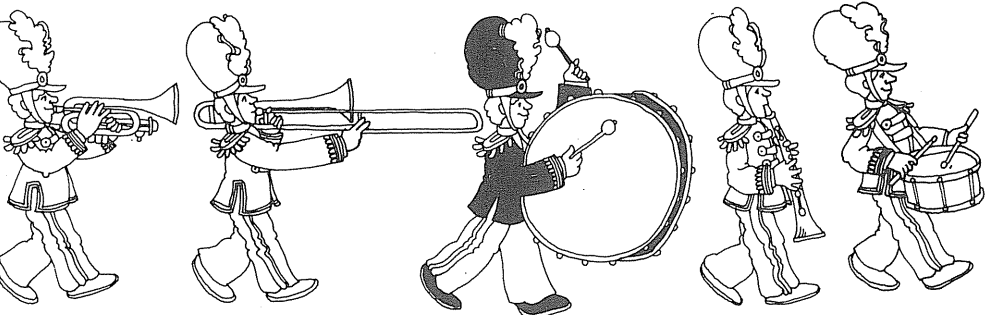
가입하여, 한 사람이 시작한 발걸음에 모두 다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지금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말일성도가 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는(또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 하고)있지만, 세상의 추세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남의 이목을 끌게 된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유일하게 보조가 맞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음악에 귀기울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참된 교회에서만만이 참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보조가 맞지 않는다고 속삭이거나(또는 외치는)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아간다면, 인류 최고의 지도자이신 위대한 구세주께서 켈지씨가 우리 밴드 단원에게 말한 그대로 말씀하실 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신앙을 지키는 자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 만민이 보조를 바꿀지어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세상이 준비를 갖추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



요셉 스미스가 젊은이에게 미친 영향

윌리엄 지 하틀리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회에 공헌한 바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젊은이들에게 끼친 영향과 쏟은 관심에 대해서는 좀처럼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태도는 당시의 젊은 사람들과 예언자와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당시 젊은이란 말은 열 살 혹은 스물 다섯 살의 연령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사춘기가 보다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장도 현재보다는 훨씬 점진적인 것이었다. 스물 다섯 살이 되어서도 신장의 발육은 멈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숙한 젊은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철이 들자마자 곧 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예언자 요셉은 젊은이에 관한 독특한 네 가지 면에서 현실했다. (1) 성숙한 사랑과 존중과 인도에 대한 욕구, (2) 일과 오락의 건전한 균형에 대한 욕구, (3) 학업에 대한 욕구, (4) 종교적인 훈련에 대한 욕구.

성숙한 사랑, 인도, 존중: 요셉 스미스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다. 젊은이들이 그에게 그토록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요셉 스미스와 엠마가 낳은 열 자녀 중 다섯 자녀를 데려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예는 허다하다. 존 벨로우가 부친과 함께 예언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소년은 두 성인들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예언자가 자신에게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윌리엄 에이취 워커는 예언자가 한 내객이 시장관저에서 일하는 하녀 중 하나를 모욕한 사실을 알고는, 그가 돈을 지불할 틈마저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내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인품을 지닌 어떤 다른 사람의 돈도 원치 않습니다.” 워커 자매가 죽었을 때, 엠마와 요셉은 그들의 열 자녀 중 몇을 데려 갔다. “우리에게 모든 특권을 주었다.”라고 딸 루시 워커가 기록했다.

요셉 스미스는 그녀의 오빠 로렌을 걸친하고 믿음직스런 친구처럼 내우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걸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했다.” 예언자가 해스 가정에 기숙하고 있었을 때, 연구에 피로해지면, 그는 어린이들과 집 부근에서 놀이를 하면서 피로를 풀었다. 그 어린이들 중에는 당시 열네 살이었던 존 더블류 해스도 끼여 있었다.

예언자는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한편,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처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구디 이 호간은 열네 살의 소년으로 나부 신전 근처의 작은 숲에서 주일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요셉 스미스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언자가 모임 중에 떠드는 장로를 제지시키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젊은이 몇 사람이 젊은 여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소란을 떠는 것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 주기를 바랐다. 그는 다만 그들이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가서 양친의 동의를 얻은 후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소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요셉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집회 도중에 자리를 떠났다. “그 모임 중에는 더 이상의 소동이 없었다.”라고 호간은 덧붙였다.

일과 오락의 건전한 균형: 요셉 스미스는 젊은이들이 일과 오락 양자를 모두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언자 자신이 잘 소화하고 있었다. 고된 신체적 노동도 불사하는 예언자의 역량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워커의 나이가 이십대 초반이었을 때, 요셉과 3년 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나는 그와 함께 건초밭으로 갔습니다. 그는 풀 베는 것을 도왔는데, 큰 낫을 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10시간이나 고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당시를 회상했다.

역사가인 티 에드가 리온은 소년 시절에 나부에 살았던 한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해 말했다. 그 노인이 소년이었을 때, 다른 십대 소년들과 함께 농장 근처에서 장난쳤다. 성난

농부가 그들을 고소해서 체포당하게 했다. 판사는 그들에게 유형을 선고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요셉 스미스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쓰디쓴 감방 생활의 경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예언자는, 판사에게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 소년들을 6개월 동안 보호할 테니 석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두 소년에게 자갈을 운반하여 나부시가의 여기저기 움푹 패인 곳을 메우게 했다. 소년들은 하루 15센트를 받았고, 그 중에서 농부에 대한 손해 배상과 법정 심리 비용을 갚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불의하게 혹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내가 겪어야 했던 가장 힘든 훈련이었습니다.”라고 이 형제는 실토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일해서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벌도록 하는 최선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레슬링과 구기와 수영과 사냥 등을 좋아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셉과 여러 번 구기를 즐겼던 윌리엄 얼레드는, 예언자가 놀이에 빠진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요셉은 한 예언자와 사냥꾼에 관한 비유를 들어 응수했는데, 그것은 분명 일과 오락의 관계에 대한 그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전개된다. 예언자 한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 “무언가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사냥꾼이 다가와 그를 책망했다. 예언자는 사냥꾼에게 그가 항상 활시위를 당기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아니오.”라고 사냥꾼은 대답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활시위의 탄력성을 잃게 되기 때문
이오.”

“내 마음 역시 그렇소.”라고 예언자
는 말했다. “나도 언제나 마음이 긴장
되어 있기를 원치 않소.”

학업: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음
에도 불구하고, 요셉 스미스는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사랑했다. 부분적으로,
그는 학교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의 아버지는 한때 학교에서 가르쳤다.
교사였던 그의 외할머니는 그의 어머니
에게 산수, 작문, 철자법 등의 기초를
가르쳤다. 요셉의 아내 역시 “교육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교양이 몸에 밴”
교사였다. 그리고 물문경을 번역하는
동안 그의 최초의 필기자였던 사람은
교사인 올리버 카우드리였다.

요셉 역시 교육받은 성도들에게 요구
하고 있는 많은 계시에 순종하려고 애
썼다. 주님은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
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
써 학문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교
성 88 : 118), “연구하며 공부하며 모든
양서를 통독하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달하며 여러 국민과 친숙하
라.”고 명하셨다. (교성 90 : 15). 하늘
과 땅의 일들과 천문학과 지질학과 지
리학과 역사 정치 시사에 대한 이해력
도 역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교성
88 : 77-80 참조)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너무 많은 개
종자들이 자신처럼 교육 수준이 낮은 것
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리슨 버
게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열네
살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
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장남이었던
나는 계속 일해야 했으며, 교육받을 기

회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역적으로 사립학교가 있거나 아예 없는
시대에 또한 사사롭게 고용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립학교는 극히 희
소하던 시대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시
대를 앞서가는 교육의 선구자가 되었
다.

말일성도들이 정착하는 대거주 지역
에 학교가 생겨났다. 커틀랜드 소재의
예언자 학교에 이어서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
교에는 총 140명의 “어린이들과 청년
들”이 같은 시각에 등교했다. 수학, 지
리학, 문법, 쓰기, 읽기, 외국어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매학기 말에 학생들
은 대판장단을 위시한 이사들 앞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또한 커
틀랜드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는 그곳에
서 개교한 몇몇 사립학교 중의 하나인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의 문을 열
었다. 미주우리에서는 물문들이 처음으
로 책순군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나부에서는 지 현장에서 하나의 종합
학교 조직을 채택할 것을 선언했다. 종
합 학교 조직이란, 각 와드에 있는 어
린이들을 위한 공립 국민학교로부터 청
소년들을 위한 세미나리(고등학교) 및
청장년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세분되
는 일련의 교육 기구를 지칭하는 것이
다. 사학가들은 나부에서 교사로 일한
남녀 수십 명을 조사해 왔다. 교육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이들 교
육 기구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했고, 이
러한 교육 제도야말로 당대에 있어 혁
신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훈련: 요셉 스미스는 자녀들에
게 종교적 훈련을 시킬 책임이 양친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시온의 주민에 대한 율법”(교성 68:25-28)을 시종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교회가 양친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일성도의 교육 기관들은 경전을 소재로 한 강독과 작문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당면 목표인 결혼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주제로 한 설교집과 경전이 간행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히버 시 킴블의 지도 아래 발전하고 있었던 나부의 “청남 청년 상호부조회”에 열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 소규모의 임시 변통적인 토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함에 따라 참석자 수가 점점 불어나서, 더 큰 회의 장소가 마련되었다. 한번은 그 그룹이 예언자의 상점 위에 있는 커다란 방에 모였을 때,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이 “훌륭하고 영광된 사업”을 돕고 있는 킴블 장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젊은이들의 선행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쳤으며,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그는 기금을 적립하라고 말하고, 그런 다음 다리를 못쓰는 한 형제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한 기구를 결성했으며, 임원을 뽑고, 월례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일성도이든 아니든 간에 나부에 있는 30세 이하의 청년들과 운순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회원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젊은 여성들 역시 성인 상호부조회에 참석했다. 한 해 앞서 열렸던 상호부조회 첫 모임에, 참석했던 20명의 자매들 중의 3명이 10대 소녀들이었다.

당시에는 신권의 기능이 아직 미분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회 청소년들 대다수를 포용하지 못했다. 연령을 불문하고, 성숙성이 선결 조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임원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에 적극 봉사했던 많은 청년들을 알고 있다. 율슨 프렛은 열 아홉 살에 선교사가 되었다. (교성 34편 참조) 라이만 존슨은 나중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젊은 회원이 되었으며 20세 때 선교 사업을 했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열다섯 살에 칩레를 받고, 시온의 진영으로 행군했으며, 열여덟 살에 칩실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 되었다.

에라스투스 스노우는 열네 살에 칩레를 받고, 열아홉이 되기 전에 오하이오,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전도 사업을 했으며, 버몬트 선교단의 일원이 되었다. 윌리엄에프 카혼은 17세에 가정 복음 교사로 성임되었으며, 요셉 스미스의 가족을 가르쳤다.

한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예언자의 공개석상에서 행한 설교 중 극히 제한된 부분만이 젊은 사람들에 관해 약간 언급하고 있으며, 기타의 기록들은 그가 젊은이들의 문제를 간파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젊은이들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과 교제했으며, 그들을 가르쳤다. 또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청년 선도 단체들을 격려했다. 그의 교훈은 지금도 크나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돈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함

에이치 다이크 월턴

나는 별 묘안이 없었지만, 작은 방 안에 있는 레기, 로버트, 찰즈, 돈 등 네사람은 내가 지방부장이거나 한 것처럼 나를 쳐다 보았다. 그들은 새 교회당을 짓는데 내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나는 그 일을 위해 여기에 파견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라도 별 뾰족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필요한 자금을 얻는 정확한 방법을 알기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공인된 방법은 회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회원들은 그와 같은 헌금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보였다. 그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도 가난하게 보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물론, 우리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 말



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먼저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서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말하자, “당신은 얼마를 제의합니까?”라고 돈이 물었다. “나는 약 50파운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은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그들을 일깨웠다. “여러분 스스로가 꺼리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서약을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서약과 함께 훌륭한 계획이 세워지고, 열성적인 작업 태도를 갖게 되며 기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나는 그들이 서약을 보류하게 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은퇴하여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청부인이고, 다른 사람은 일당을 받는 노무자로 매 가족을 거느리고 작은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에, 돈은 찰즈와 함께 나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찰즈는 돈을 보고 말했다. “나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겠습니다. 월턴 형제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좋습니다.” 돈이 대답했다. “일곱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러나 50파운드 기부금 제의로 인해 그의 눈에 서렸던 근심의 빛은 아직 가지 않고 있었다.

찰즈와 나는 호텔 베란다의 계단을 올라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가 걸어온 고된 생애의 역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커다란 녹색의 공원이 있는 거리를 내려다 보았으며, 저쪽 멀리 인도양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돈에 대해서 말씀드립지만, 나는 고정된 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수입이란 전연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아내와 나는 매달 써야 할 돈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닙니다. 나는 50파운드나 50파운드 이하의 돈을 만들기 위해 저장잡힐 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직책에 그를 앉힌 것을 후회했다. 나는 또한 그가 우리의 짐을 함께 지지 못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나와 같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같이 커다란 사업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나는 찰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노력에 관해서 기록한 역사의 많은 페이지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당신의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과 주님 사이의 문제이며, 나나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찰츠는 일어섰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는 작고, 창백하고, 손에 힘이 없다고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에 진실한 인간만이 가지는 빛이 있었다. 그는 청소를 하고 있는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거리를 건넌을 때, 돌아서서 손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는 나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내가 막 나의 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레기가 와서 손을 흔들며 그의 차를 세웠다. 그는 젊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한번에 두 계단씩 뛰어 올라왔다. 그는 나에게 그가 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과, 어린 자녀들과 일거리의 부족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그가 간단하게 50파운드를 현금하겠다고 서약하는 어렵다는 것을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꼭 붙잡고 말했다. “이 문제를 가족과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이 회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레기는 바빴고, 나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서약하지 않는 한, 회원들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레기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나의 방문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젊은 호텔 종업원 하나가 전화로 나를 불렀다.

내 방자는 로버트였다. 그는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으며, 선량한 사람이었

고, 최근에 개종했다. 그는 천천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거의가 찰츠의 얘기와 상통했다. “연금은 작고...수입은 고정되고.....” 등등의.

나는 로비에 있는 접객용 책상 앞에서 있었다.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공적인 장소에서 로버트의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로버트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형제님이 의논해야 할 분이 나의 의에도 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모임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회원들은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작은 벽돌 건물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창문을 모두 닫았으나, 여전히 벽을 통해서 이웃집의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모임은 놀랄 요소라고는 거의 없는 평상적인 것이었다. 전날 오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부장과 그의 보좌들이 새로운 건물을 위해 자기 50파운드씩 현금하기로 서약한다고 말했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진실성이 있었고, 청중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동했다.

나는 다음날 확신을 가지고 시드니로 돌아왔다. 기금이 모일 것이며, 건물을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조정해야 할 것은 교회 건물 감독자였다. 나는 솔트레이크로 전보를 쳐서 한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첫 2·3주에 퍼스로부터 들어온 보고 들은 고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회원들이 현금을 약속하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곧 그들이 건물을 착공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확실히 나는 건립할 건물도 없이 퍼스에 건축 감독이 주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돈에게 전보를 썼고, 한 주 후에 네 사람과 다시 마주 앉았다. 이 때, 그들 가운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고조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으나, 일단 접어두고, 레기에게 보고하도록 부탁했다.

“나는 어떻게 50파운드를 얻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어떤 서약하기로 마음먹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50파운드를 서약한 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려고 회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의 씨를 회원에 공급하는 청부를 맡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이곳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 회원은 마침 미국 상사로부터 이런 꽃씨들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나는 주말과 일과 후의 틈나는 시간을 꽃씨를 모으는 데 바쳤습니다. 우리는 약정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용돈을 벌고 가족 소품까지 즐겼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결코 엄두도 못냈던 몇가지 사업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나는 로버트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는 다리를 포개고 조용한 미소를 띄우고 앉아 있다가, 상체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얘기를 시작했다.

“레기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임이 있기 전후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약간 가졌습니다. 나는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옛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곳 대학에 입학해서 하숙을 정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여분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난 두 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 가정에 밝고 따뜻한 빛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는 소속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됐소?” 돈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 네! 물론 잘 됐지요.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학업 연한 동안의 하숙비를 선금으로 50파운드 보내왔어요. 어머니와 내가 필요로 하는 식량에 그가 먹을 것 약간을 보태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 정원에서는 지금 식물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를 보고 미소지었다. 나는 감동해서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우리는 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새로운 기쁨을 더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돈은 찰즈를 돌아다 보았다. “이제 당신의 얘기를 들읍시다.”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소. 주님의 집을 위해 내가 약속한 50파운드를 얻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소. 나도 내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나의 서약을 이행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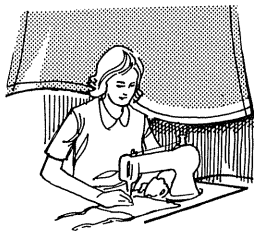
“나는 그 모임이 있는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 있었오. 내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보강재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내 옆으로 왔소. 나는 트럭과 가까운 거리에 서 걸고 있었고, 주위에는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오. 사람들 여러 명이 길을 피하느라고 동시에 복작거렸오. 나는 그 트럭이 화물의 끄트머리에 경고용 형질을 매달지 않은 사실에 매우 노해서, 집에 돌아오자 경찰서장을 불렀오. 그는 나에게 붉은 기를 달도록 명하는 포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트럭 운전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고용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포고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오.

찰츠는 깊은 숨을 들이키고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아내와 나는 마을에 있는 붉은 천을 모두 사들였오. 그리고 그것을 포고문에 규정된 크기대로 잘랐오. 그런 다음 아내는 솔기를 박고, 나는 화물에 매달 수 있도록 질긴 삼실 가닥을 붉은 천에다 꿰었오. 나는 트럭 운전사 몇명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주문이 쇄도했오. 그동안의 파분하고 지루했던 나날들이 생산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빌딩이 완공된 후까지도 우리에게 금전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작은 사업체를 차리게 되었오. 그렇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서약을 이행했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해낼 힘을 보유하게 되었오.” 그는 감사 이상의 어떤 흥분까지를 내포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고 돌아 앉았다.

돈이 보고할 차례가 되었다.

“우리가 건축기금 받기 모임을 가진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 나는 조조 대매 출장에 갔습니다. 나중에, 나는 우리 상점의 지배인이 물품을 나르는 것을 돕는 정직한 조력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을 서고, 아내와 두명의 나이든 딸들도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점측과 합의한 첫 임금인 5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우리는 다시 물품을 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시기입니다. 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옷사람이 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인상된 봉급을 받았고, 다음 차례에 승진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서약을 명예롭게 이행할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 그것은 비록 나는 전문가로서의 부족함을 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조력가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퍼스에 있는 훌륭한 성도들은 순종과 노력으로 그 도전에 대처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늘 문을 여심으로써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이다. *



편의주의의 위험



지역 대표 한 인 상 장로

최근에 와서 나는 자주 일관성에 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람이 지니는 저마다의 개성과 인품, 취미와 능력의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성을 기본 원리로 하는 한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가 준수해야 할 질서나 규범이 요구되고 또 제정 시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유익, 곧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질서 규범이 운용될 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편견이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잃고 편리하게 해석되거나 합리화되는 데 혼란과 파괴가 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지 않고 태어나는 일이나 죽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다. (교성 130:20 참조)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는 다섯 개의 시온의 스테이크와 세 개의 선교부가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뜻과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죄 값을 값으셔서 우리 모두가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므로 (교성 88:120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 일관성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도록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인간이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셨던 마음이나 그 후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시는 마음은 하나로 같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지 삶의 형식이나 치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의 밤을 실제로 갖는 것과 갖지 않으면서 갖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같을지 몰라도 하나는 가정의 밤을 가진 것이고 후자는 갖지 않은 것임은 너무도 분명해서 이야기하는 일조차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인간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신권 역원과 성도들은 쉽게 묵과해선 안될 것이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지부와 나의 와드와 나의 스테이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주님의 복음의 원리와 계명을 지키며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성탄의 종이 울리는 동안 어린 아이도 그 소리를 듣고 어른도 듣는다. 남자도 듣고 여자도 듣고 가난한 사람도 듣고 부자도 들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도 듣고 낮은 사람도 듣는다.

나의 작은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기심과 사치와 교만을 정리하여 영원한 발전을 저해하는 편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선다면 이 성탄절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값지게 기억되어야 할 훌륭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8~11)